

守拙堂 李宜潛의 생애와 詩文學을 통해 본 삶의 行蹟

신일권*

|| 차례 ||

1. 서론
2. 생애와 학문연원
3. 詩文學을 통해 본 삶의 行蹟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守拙堂 李宜潛(1576-1635)의 생애와 詩文學을 통해 삶의 行蹟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수졸당의 학문 연원은 어렸을 때 父 수암공으로부터 학문의 기초를 익히고, 大庵 朴惺, 芝山 曹好益, 愚伏 鄭經世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졸당은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임진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칼을 들고 팔공산회맹과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다. 수졸당이 교유한 인물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이때 만났던 사람들로 각 지역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守拙堂逸稿』에 남겨진 시문학을 통해 수졸당은 평소에 늘 나라에 대한 충정어린 걱정을 하곤 했으며, 또한 盡忠報國에 대한 의식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제우애와 가족애 그리고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이 때문에 만년에는 벼슬에 대한 뜻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자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졸당은 위로 두 형님이 일찍 졸하자 셋째인 雪川亭과 함께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양동이 회재를 낳았다면 양동마을의 형성은 설천공과 수졸당에 의해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

주제어 : 守拙堂 李宜潛, 晦齋 李彥迪, 양동마을, 옥산서원, 임진왜란, 八空山會盟, 火旺山會盟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nanaconan@hanmail.net

1. 서론

본고는 守拙堂 李宜潛(1576-1635)의 생애와 詩文學을 통해 삶의 行蹟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졸당은 晦齋 李彦迪의 손자이다. 조부 회재선생의 학문을 父 守庵 李應人이 계승하고, 수졸당은 가학으로 수암공에게 학문의 기초를 익혔다. 또한 大庵 朴惺, 芝山 曹好益, 愚伏 鄭經世에게 나아가 학문을 배웠다. 위로 두 형님이 일찍 졸하자 셋째인 雪川亭과 함께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양동이 회재를 낳았다면 양동마을의 형성은 설천공과 수졸당에 의해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

수졸당은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임진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칼을 들고 의병으로 나갔으며,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공은 비록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이는 평소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만년에는 병을 핑계로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수졸당을 세워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노력하며 전원에서 한가롭게 여생을 보냈다.

수졸당이 남긴 글은 원래 遺文 7책과 行錄, 輓祭文을 실은 부록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졸당의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팔대 손 敬庵 李在穆이 諸家の 文集과 遺集 속에서 공의 시문을 수집하여 『東湖逸稿』를 편집하였다. 이어 구대 손 苟窩 李能烈이 이를 더욱 보충하고 정리하여 1905년에 『守拙堂逸稿』를 편집하였다.

『수졸당일고』의 내용은 모두 三卷으로 되어 있는데, 一卷에는 詩 12수와 書 4편, 祭文 6편이 실려 있다. 二卷은 부록으로 遺事, 行狀, 墓誌銘, 墓碣銘을 비롯하여, 告由文, 祝文, 上樑文, 記 등이 실려 있고, 三卷도 역시 부록으로 당대의 諸賢이 공에게 준 詩, 輓, 書와 聞見錄이 수록되어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먼저 수졸당의 생애와 학문연원을 알아보고, 『수졸당일고』에 남겨진 詩文學을 통해 삶의 行蹟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생애와 학문연원

2.1 생애

李宜潛(1576-1635)은 본관이 驪州이고, 자는 炳然이며, 호는 守拙堂이다. 1576년 경주 양좌리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晦齋 李彦迪이다. 父 守庵 李應인과 母 인동 장씨 사이에 태어난 첫째가 無忝 李宜潤(1564-1597)¹⁾이고, 둘째는 養拙 李宜澄(1568-1596)이며, 셋째가 雪川 李宜活(1573-1627)²⁾이고, 넷째가 守拙 李宜潛(1576-1635)이다. 李敦禹³⁾가 쓴 행장을 참고하여 이의 잠의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92년(16세) 無忝·雪川·雙峰 鄭克後와 함께 옥산서원에서 공부하였다. 4월 16일 왜적이 침입하여 父 수암공을 모시고 옥산에 피하였다가 죽장현 吾士里로 옮겼다. 5월 수암공을 모시고 경주의 義陳에 나아가 머물고 있던 왜를 토벌하였다. 12월 기계현 幕谷(幕谷)에 옮겨 살았다.

- 1593년(17세) 4월 父 수암공의 상을 당하였다. 임시로 松峴에 장례를 치렀다가 10월에 달전(達田) 문원공 산소의 뒤쪽에 옮겨서 합장하고 여러 형님들과 함께 산소 앞에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 1595년(19세) 탈상하였다. 참봉 孫曄, 藍浦 崔繼宗, 참봉 權應生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1596년(20세) 大庵 朴愷(1549-1606)선생이 청송에 들어와서 學顏齋를 세우고 후생들을 가르치자 공이 때때로 가서 배웠다. 9월 여러 義士들과 함께

-
- 1) 신상구, 「무침당 이의운의 선비로서의 삶과 학문」,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 I』,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2, 53-72면 참조.
 - 2) 김상일, 「설천 이의환의 생애와 시세계」,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II』,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3, 15면 참조.
 - 3) 李敦禹(1807-1884), 본관은 한산이고, 자는 時敏이며, 호는 肯庵이다. 大山 李象靖의 증손이고 定齋 柳致明의 문인이다.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八空山會盟에 참가하였다. 이해 겨울에 둘째 형님 養拙公의 상을 당하였다.

• 1597년(21세) 7월 忘憂堂 곽재우가 火旺山城을 지킬 때 공도 또한 나아가서 방어할 계책을 극진히 진술하였다. 12월에 첫째 형님 無忝公의 상을 당하였다.

• 1598년 12월 광주 李山岳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 1599년(23세) 가을 芝山 曹好益선생이 평안도에서 돌아와 영천의 陶村에 우거함에 공은 설천공과 함께 문하에 나아가서 주역과 시경을 배웠다.

• 1600년(24세) 봄에는 동문 守庵 鄭四震, 都事 鄭樟, 朴墩과 함께 서재를 건립하였다. 나중에 忘懷亭 옆으로 옮겼다. 晦齋書의 별집을 간행하였다.

• 1602년(26세) 봄 心經, 大學補遺, 求仁錄 등 서적을 다시 간행하였다.

• 1603년(27세) 가을 東阜 徐思選이 내방하였다.

• 1606년(30세) 10월 大庵 朴惺선생이 졸하였다.

• 1609년(33세) 8월 芝山 曹好益선생이 졸하였다.

• 1610년(34세) 愚伏 鄭經世(1563-1633)선생의 문하에 나아갔다.

• 1612년(36세) 7월 설천공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사림에서 백사 이항복에게 문원공의 墓誌를 지어달라고 청하여 무릇 일곱 번이나 왕복하였는데 공이 네 번이나 갔었다.

• 1616년(40세) 蔭仕로 參禮察訪에 등용되었다. 설천공은 龍潭현령이 되었다.

• 1617년(41세) 9월 漢岡 鄭述(1543-1620)선생이 石潭 李潤雨, 東湖 李籟 등과 함께 경주를 지나가게 되자 공은 부윤 尹孝全과 함께 맞이하여 배알하고 포석정, 월성에 노닐며 경전의 뜻을 질의하였다.

• 1621년 내직으로 들어와서 內司로 옮겼다.

• 1623년(47세) 金吾郎이 되었다. 7월 만아들 鰲 졸. 겨울에 河陽현감에 제수되었다.

• 1624년(48세) 1월에 河陽현감으로 부임하였다. 2월에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에 머무를 때 군량을 운반하여 행재소에 나아갔다.

• 1625년(49세) 4월 병으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살고 있던 곳의 북쪽 산기슭에 수졸당을 세웠다.

- 1626년(50세) 옥산서원의 원장이 되어 서원의 사당과 여러 집들을 중수하였다.
- 1627년(51세) 10월 설천공의 상을 당하였다.
- 1632년(56세) 봄에 先集과 여러 서적들을 다시 인쇄하였다.
- 1633년(57세) 先集의 부록을 편정하였다. 서애 류성룡선생의 <館學의 疎에 답하는 御札의 끝에 쓴 글>을 간행하였는데, 그 때 文康公(旅軒 張顯光)이 立巖(죽장면 입암리)에 옮겨와 살았으므로 편지로 상의하여 정하였다.
- 1635년(59세) 7월 7일 졸하였다. 달밭(達田) 中岡에 장사지냈다.

2.2 學文淵源

공은 어렸을 때 父 守庵公으로부터 학문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20세 되던 해인 1596년 大庵 朴槿(1549-1606)⁴⁾선생이 청송에 들어와서 學顏齋를 세우고 후생들을 가르치자 공이 때때로 가서 배웠다. 1606년 10월 대암 박성선생이 졸하였다. 이때 지은 제문을 보자.

아, 생각건대 영령께서는 광채와 산악의 正氣요, 천지의 精英이시며, 미더운 군자요, 진실로 나라의 근본이었습니다. 일찍이 과거의 공부를 벗어남에 학문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만년에는 그윽하고 조용한 곳을 가려서 정하니 즐거움은 山水에 있었습니다. 임금의 부름을 사절한 邵子(邵康節)와 遯卦를 만난 晦翁(朱熹)의 마음속에 가득한 경륜은 一畝의 儒宮이었습니다. 시대를 근심하여 글을 올린 것은 白日과 같은 외로운 충성이요, 나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

4) 朴槿(1549-1606),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德凝이며, 호는 大庵이다. 19세 때 사마시에 장원을 하였다. 21세 때 洛川 裴紳, 한강 정구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경상도 초유사 학봉 김성일의 종사관이 되었다. 45세 때 안음현감을 지내고, 48세 때 공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청송에 들어가 초가를 짓고 이름을 '學顏齋'라 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체찰사 이원익이 대암을 청송 진보 영덕등 3개 고을 의병대장을 삼고 왜적을 무찌르게 하였다. 55세 되던 봄에 조정에서 군자감부정, 가을에 청송부사를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58세 때 졸하였다.

만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의리를 버리는 것은 평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는 왕명이 비록 잘못이나 점괘는 쉬는 것으로 그쳤으며, 진퇴를 의리로 하여 확연히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모가 나고 안으로는 울곧아서 오로지 바른 길만을 걸어가며, 악을 미워하되 강경하고 엄격하며, 사람을 사랑하되 지극히 간절하였습니다. 논의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고, 時宜에 맞고 바른 것이었으며, 덕은 고명한 경지에 이르러 세상에서 우리러 받드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의잡이 못나서 스승으로 모시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일찍이 허가를 받아 때때로 경계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學顏齋 위에서 여러 번 얼굴과 풍채를 접하였는데, “네가 게으르지 않으니 능히 너의 業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辭色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거의 떨쳐 일어날 것 같았는데, 누가 뜻했겠습니까. 한 번 작별이 이토록 빨리 유명을 달리 할 줄을 말입니다. 부음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잠시 슬픈 심정을 덜었으나 유택에 나아가는 장례 때는 병으로 壙中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한 해가 바뀌어 돌아왔건만 한 번 奠을 올리는 것도 아직 못했으니, 이제 와서 술잔을 올리고 길게 통곡한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뜻에 달하지 못하니 혹시 精靈께서 감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⁵⁾

학안재는 대암 박성선생이 청송 주왕산 밑에 우거할 때 지어서 강학에 힘쓰던 초당이다. 수졸당은 때때로 학안재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대암 선생께서 “네가 게으르지 않으니 능히 너의 業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대암 박성선생이 졸한 후 1599년(23세) 가을 芝山 曹好益(1545-1609)⁶⁾

5) 朴槿, 『大菴先生集』 卷之六, 「附錄」, <祭文[李宜潛]>. ;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大庵朴先生文>, “嗚呼惟靈 光嶽正氣 天地精英 允矣君子 展也邦楨 早脫科業 學專爲己 晚卜幽貞 樂在山水 辭徵邵子 遇遜晦翁 滿腹經綸 一畝儒宮 憂時抗章 白日孤忠 言莫我用 枉尺非志 召命雖數 兆足以止 出處以義 確乎不拔 外方內直 一踏繩墨 嫉惡剛嚴 愛人懇惻 論議無偏 正中時宜 德造高明 爲世宗師 潛雖服矣 永及樞衣 尙蒙許可 時承警誨 學顏齋上 屢接顏采 曰汝無怠 克世乃業 辭氣動人 庶幾振發 執意一別 遽此幽明 聞訃而葬 暫洩哀情 及其卽幽 病未臨穴 暮年已周 一奠尙闕 今來薦酌 長慟何言 辭不達意 倘格精魂 嗚呼哀哉”

6) 曹好益(1545-1609), 본관은 창녕이고, 자는 士友이며, 호는 芝山이다. 퇴계 이황의 문하에 출입하여 학문을 익혔다. 경상도사 崔滉에게 반항하여 평안도 강동에 유배되었다.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다. 품계가 折衝將軍에 이르고 벼슬이 3품에 올랐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영천의 陶村에 우거하여 4년을 지냈는데, 1603년 봄에 郡의 남쪽 芝山洞으로 옮겨 터를 잡아 茅齋를 짓고는 拙修堂이라 이름

선생이 평안도에서 돌아오자 공은 설천공과 함께 문하에 나아가서 『주역』과 『시경』을 배웠다. 1600년 봄에는 동문 守庵 鄭四震, 都事 鄭樟, 朴暉과 함께 서재를 건립하였다. 나중에 忘穰亭 옆으로 옮겼다. 1609년 8월 지산 조호익 선생이 졸하였다. 아래는 지산에게 보낸 편지이다.

…매양 높으신 덕망을 사모하여 구름과 안개를 헤치듯이 의문 나는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자연히 병이 많아서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봄을 기다려서 삼가 재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⁷⁾

작별을 고하고 물러온 지 며칠 되었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였는데 도체의 동정이 어떠하신지요. 구구하게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옛날에 비하여 배나 됩니다. 의혼·의잠 등은 돌아오자 다시 퇴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 이미 모두 머리에서 아득히 멀어져서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잊은 것 같기도 하여 스스로 노둔한 자질이 끝내 교화로 인도하는 것을 받들 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마땅히 다시 가르치시는 자리의 아래로 나아가 머물면서 수일동안 모실 계획입니다.⁸⁾

수일동안 깨우쳐 주시는 곳에서 떨어져 있사오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였는데 도체가 어떠하시옵니까? 의혼·의잠 등은 가르침을 받은 심경의 뜻을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끝내 의문이 나서 껌껌하기로 이 뒤에 마땅히 문목을 갖추어서 받들어 아뢰까 합니다.⁹⁾

하였으니, 이는 朱晦庵의 詠蘇詩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1609년 65세로 졸하였다. 《家禮考證》, 《心經質疑考證》, 《周易釋解》, 《雜問》 등 근 10편을 저술하였으나 모두 없어지고 현재 보존된 것은 오직 理氣辨과 儒釋辨 두 가지일 뿐이다. 《大學童子問答》과 《性理大全》 또한 고증한 것이 있는데 다만 《대학동자문답》 가운데 平天下 한 章은 미처 끝마치지 못하였다.

- 7) 李宜潛, 『守拙堂逸稿』, <上芝山先生>, “…每仰高風欲披霧 而自然多病 願莫之遂 當待春風 謹納再拜之禮”
- 8) 李宜潛, 『守拙堂逸稿』, <上芝山先生>, “辭退有日 伏不審道體動靜若何 區區仰慕倍昔 宜渾宜潛等 歸復頽放 追思教誨 已盡茫然 若存若亡 自懼駑質終無以承化導之力也 近當更進教席之下 留侍數日伏計耳”
- 9) 李宜潛, 『守拙堂逸稿』, <上芝山先生>, “數日違誨 戀慕還深 伏未審道體何如 宜渾宜潛等 所受心經之義 歸而思之 終似疑晦 終當具問目奉稟耳”

위의 편지 내용으로 보아 지산으로부터 학습방식은 평소에는 집에서 학습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설천·의잠 형제가 함께 영천에 가서 수일동안 스승에게 질문하여 의문을 해결한 뒤에 돌아오곤 했음을 알 수 있다. 1606년에 지산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떠나온 지 한해를 거르고 보니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지극합니다. 생질이 오는 편에 삼가 道體의 동정을 듣건데 神氣가 매우 평안하시다니 보잘 것 없는 저의 정성에 기쁘고 유쾌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의잠은 늘 스승님을 달려가서 모시고 삼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서로 잇달아서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지은 죄가 참으로 깊습니다. 끝으로 도가 더욱 무거워지기를 빕니다.¹⁰⁾

당시 영천에 살고 있던 지산선생님의 생질 曹軸을 통해 스승이 평안하시다는 안부를 전해 듣고 기뻐하고, 질병으로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해하고 있다. 1609년에 지산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새해가 되어 봄이 시작되는데 도체가 성하여 큰 복을 받으셨으니 저의 정성에 위로하고 하례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의잠은 돌아오는 길에 눈바람을 만나 감기가 매우 심하여 자리에 눕게까지 되었습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어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성을 표한 물건이 없어 청어 약간을 부엌에 드리오니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¹¹⁾

1609년 1월쯤에 쓴 것으로 보인다. 스승을 찾아뵙고 돌아와 쓴 편지이다. 스승에게 청어를 보냈다는 것이 흥미롭다. 당시 포항지역에는 청어가 많이 잡

10) 李宜潛, 『守拙堂逸稿』, <上芝山先生>, “辭違隔年 景慕方極 甥姪 伏聞道體動靜 神相萬安 區區下誠 不任喜慰 宜潛每欲趨陪函丈 敬承俯就之教者雅矣 病病相仍 茲未踐誠 負罪實深 餘祝爲道加重”

11) 李宜潛, 『守拙堂逸稿』, <上芝山先生>, “獻歲發春 道體茂膺遐福 下誠不任慰賀 宜潛回程觸冒風雪 中寒頗劇 迨臥牀第 私憫曷喻 無物表誠 碧魚略呈廚下 無任愧悚”

혔으니 구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영천은 수산물이 귀하니 청어를 보냈던 모양이다. 이해 8월에 지산이 졸하였다. 다음은 지산이 졸하자 쓴 제문이다.

아아, 선생께서는 天地의 순수한 기운을 타고 나셨고, 총명하고 빼어난 자질이 남달랐습니다. 포은 선생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서 알았고, 퇴계 선생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서 알았습니다. 誠意를 보존하고 恭敬을 존중하면서 이치를 궁구함에, 義는 정미롭게 되고 仁은 폭 익었습니다. 그리하여 濂閩의 遺緒를 이었고, 洙泗의 正派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¹²⁾ 그러니 선생께서는 道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20년간을 도깨비들이 우글대는 변방 땅에서 살았고, 8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군마를 타고 내달렸는바, 갖은 곤역 속에서 분주하게 오간 탓에 자신의 도를 시행해서 이 세상을 태평스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모두 불태워 버려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없는 탓에, 文字에 실려 있는 선생의 도는 백에 한 둘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복 없음과 후학들의 불행이 어찌 이와 같단 말입니까. 그러나 《周易說解》는 복희와 문왕의 본뜻을 깊이 얻었으며, 《大學問答》은 경전의 오묘한 뜻을 가장 잘 드러내었습니다. 《心經考誤》는 師門에 큰 공훈을 끼친 것이며, 《家禮考證》은 禮俗의 지침서가 될 만합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斯道를 천명한 것은 역시 크다고 하겠습니다. 百代 뒤에 眞儒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이를 인하여 이 세상에 미루어 밝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도는 참으로 애당초부터 행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小子들이 어찌 유감으로 여기겠습니까. 아아, 옛날에 저희 先祖¹³⁾께서는 속에 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퇴계선생께서 이미 극도로 높이어 찬양하기는 하였지만, 선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험뜯음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께서는 이미 曲江書院에 제사 지내는 글을 지어 함축되어 있는 오묘한 뜻을 다 발현하였으며, 또 《關西錄》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를 비난한 글을 뽑아내어 그에 대해 분변해 밝혀, 험뜯는 말이 이 세상에 행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는 참으로 저희 집안이 크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12) 유학의 정통을 이었다는 뜻이다. 濂閩은 周敦頤와 朱熹를 가리키고, 洙泗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13) 회재 이언적을 가리킨다. 조호익은 곡강서원에 회재 선생을 奉安한 데 대한 祝文을 지어 이언적을 기렸으며, 남명 조식이 <關西問答>을 지어 이언적을 비난한 데 대한 변론을 지었다.

리고 소자 등은 또 늦게 서야 선생의 門庭에 나아가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詩經》과 《周易》을 배워 담벼락을 마주한 것처럼 껍껍하던 몽매함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 선생의 덕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桃花潭 가와 翫餘齋 안에서 다시는 봄바람처럼 따사롭던 선생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앞으로 저희 소자들은 그 누구를 우리르겠습니다. 이에 조출하게 제수를 마련하여 저희들의 하찮은 정성을 펴면서 永訣을 고하는 바입니다. 삼가 尊靈께서는 부디 흠향하시기 바랍니다.¹⁴⁾

위의 제문을 통해 공은 지산으로부터 주로 『시경』과 『주역』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산의 저서 중에는 『周易說解』, 『大學問答』, 『心經考誤』, 『家禮考證』이 있으며, 曲江書院¹⁵⁾의 奉安文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회재 이언적선생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험뜯음이 매우 많았는데, 지산 선생께서 곡강서원의 봉안문에서 심오한 뜻을 남김없이 다 밝혔고, 『關西錄』 가운데에서 선조를 비난한 글을 뽑아내어 그에 대해 분변해 밝혀, 험뜯는 말이 세상에 행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집안이 지산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다.

지산 조호익선생이 졸한 후에 1610년 愚伏 鄭經世(1563-1633)¹⁶⁾선생의

14) 曹好益, 『芝山先生文集』附錄卷之二, <祭文[門人李宜渾, 李宜潛]>;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芝山先生文>, “嗚呼先生 稟天地純粹之氣 挺聰明絕異之資 於圃隱聞而知之 於退溪見而知之 主敬窮理 精義熟仁 以紹夫濂閩之遺緒 而上泝乎洙泗之正派 則先生之於道 可謂成矣 而廿載魅鄉 八年兵戈 窮阨奔走 既不得行其道而濟斯世於太平 而焚稿之餘 存者無多 其道之載於文字者 百不一二 夫何斯民之無祿 而後學之不幸若是哉 然而周易說解 深得義文之本意 大學問答 最得經傳之微旨 心經之考誤 有大功於師門 家禮之考證 爲指南於禮俗 其所以闡明斯道者亦大矣 百世之後 眞儒有作 則必因是以推明於世矣 然則先生之道 固未始不行矣 小子何憾焉 嗚呼 昔我先祖 抱道埋沒 雖退陶先生已極其闡揚 而異趨之人 誣讎滋多 先生既於曲江禋享之文 盡發其蘊奧 而又取關西錄中 卞而明之 使諛辭不行焉 此固吾家受恩之大者 而宜渾等又晚登門庭 厚蒙誘掖 學詩與易 得開面牆 則先生之德 其又可忘耶 嗚呼 桃花潭上 翫餘齋中 不復得侍春風之座矣 嗚呼痛哉 小子安仰 薦薄具而陳微悃 聊以告永訣 伏惟尊靈 庶幾歆格”

15) 曲江書院, 영일군 흥해에 있었던 서원으로 1607년에 세웠다. 회재 이언적선생을 모셨다.

16) 鄭經世(1563-1633),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景任이며, 호는 愚伏이다. 서에 류성룡의 제자이다. 임진란 때 의병장으로 공을 세웠다. 영해부사, 이조판서와 예문관,

문하에 나아갔다. 우복 정경세는 1633년에 졸하였는데, 이때 지은 만시를 보자.

奎璧精英降我公	밝고 아름다운 별과 구슬이 우리 님께 떨어져
淵源直接洛江東	학문의 연원은 바로 낙동강 동쪽에 이어졌도다.
一生德業興評重	평생에 덕업은 여론과 평론이 무겁고
半世經綸聖眷隆	반평생의 경륜은 임금의 보살핌이 융숭하였네.
自謂斯文天不喪	스스로 하늘이 사문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일컫지만
誰知吾道慟無窮	누가 우리 도의 끝없는 서러움을 알아주랴.
從今永失依歸地	이제부터 영원히 가서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으니
小子於何更發蒙	小자가 어디에 가서 다시 몽매함을 밝히리오. ¹⁷⁾

학문의 연원이 낙동강 동쪽에 이어졌다고 하여 우복선생이 西厓의 문하에서 학문을 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스승의 죽음으로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으니 이제 어디에 가서 다시 몽매함을 밝히겠는가하고 슬퍼하였다. 다음은 우복선생을 위해 지은 제문을 보자.

생각건대 공은 정기를 별과 산악에서 타고 나신 間世의 眞儒이시며, 西厓의 문하에서 깨달음이 있어 일찍이 薰陶를 받아 성리를 연구하고 공리함에 여력으로 하는 일은 문장이었습니다. 대궐에서 이름을 날리고 조정에서 淸宦을 역임하였으며, 기러기 날개털이 순풍을 만나니 앞길이 만리나 되었습니다. 중년에 불행한 일을 당하자 물러나서 깊고 그윽한 곳을 지키니 불우하고 곤궁함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곤궁할수록 더욱 형통해졌습니다. 만년에 다시 임금과 서로 만남에 높은 자리에 잘 부합되어 좋은 계략을 아뢰니 요순은 우리 임금이었습니다. 세자가 가르침을 받아들이니 태평 성세의 뿌리와 기반이 되었으며, 조정에서는 본보기가 있고 나라에서는 원로 중신이 있으니 백성들의 우리러 사모함이 마치 태산과 喬嶽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질병을 만나 거의 약을 쓸 수도 없게 되었으니 哲人은 시들어 떨어지고 나라에서는 복이 없었습니다. 무릇 우리 무리에 게 있어서 평생 모범으로 삼을 스승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산중의 오솔길은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養正篇』, 『喪禮參考』, 『愚伏集』 등이 있다.
17) 李宜潛, 『守拙堂逸稿』, <輓愚伏鄭先生>

띠 풀로 짖 찾습니다. 하늘의 별은 바뀌고 돌아 어느덧 小祥이 닥쳐와서 슬픔을 머금고 정성을 드리오니 비로소 옛 일이 부끄럽습니다. 산골짜기의 물에 있는 마름처럼 제물이 비록 박하다 해도 오히려 마음속에 정성이 있습니다. 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의 양양한 물을 말입니다.¹⁸⁾

이 <祭文> 아래의注에, “살펴 보건데, 本稿에 이르기를 “경주 후학 權應生·李宜潛·鄭克後·孫魯 등이 삼가 시절에 맞는 식물의 奠으로써 같은 고을의 鄭四達를 보내어 삼가 贈 贊成 우복 정선생께 제사를 올립니다.”하였으니 글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기록해두는데 權魯軒과 鄭雙峰集에도 또한 보인다.”¹⁹⁾라고 되어있다. 『수졸당일고』를 편집하면서 후손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祭文> 끝부분에, “무릇 우리 무리에게 있어서 평생 모범으로 삼을 스승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산중의 오솔길은 띠 풀로 짖 찾습니다.”²⁰⁾라고 했다. “山逕茅塞”은 맹자가 高子에게 이르기를 “산중의 오솔길은 사람이 다니는 동안에는 언뜻 길을 이루었다가 잠시만 다니지 않으면 띠 풀이 짖 차게 되나니, 지금 그대의 마음에 띠 풀이 짖 찾구나.”²¹⁾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제 어디서 다시 본받을 스승을 찾아 몽매함을 밝히겠냐는 것이다.

이상에서 수졸당의 학문 연원은 어렸을 때 父 수암공으로부터 학문의 기초

18) 鄭克後, 『雙峯先生文集』卷之四, 「祭文」, <祭愚伏鄭先生文 小祥時>. ;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愚伏鄭先生文>, “惟公正稟星嶽 問世眞儒 有覺匡門 蚤被薰陶 研窮性理 餘事文章 紫禁蜚英 清朝歷擢 鴻毛順風 萬里前程 中遭不淑 退保幽貞 陋窟何傷 因而愈亨 晚復際遇 契合風雲 嘉謨入告 堯舜吾君 青宮納誨 太平根基 朝有模楷 國有蒼龜 民之仰之 泰山喬嶽 不幸邁疾 庶幾勿藥 哲人其萎 邦之無祿 凡在吾黨 素所矜式 於何考德 山逕茅塞 天星易周 遽及祥基 含哀致誠 愧古忸怩 澗蘋雖薄 猶有心香 嗚呼可忘 洛水洋洋”

19)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愚伏鄭先生文>, “按本稿云 慶州後學權應生·李宜潛·鄭克後·孫魯等 謹以時羞之尊 遣同邑鄭四達 敬祭于贈贊成愚伏鄭先生 則未知文出誰手 故錄之 亦見權魯軒鄭雙峰集”

20) 鄭克後, 『雙峯先生文集』卷之四, 「祭文」, <祭愚伏鄭先生文 小祥時>, “凡在吾黨 素所矜式 於何考德 山逕茅塞”

21) 『孟子』, 「盡心下」, “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

를 익히고, 大庵 朴惺, 芝山 曹好益, 愚伏 鄭經世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3. 詩文學을 통해 본 삶의 行蹟

3.1 憂國表情과 盡忠報國

수졸당은 평소에 늘 나라에 대한 충정어린 걱정을 하곤 했다. 그와 교류하던 주변 인물들 또한 모이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다. 다음 시는 權士諤, 戚兄 孫時와 함께 子固 金石堅의 산장에 찾아가서 경치를 감상하면서 奇, 遲, 碁, 時, 誰를 운자로 하여 같이 지은 글에서 그의 이러한 마음을 볼 수 있다.

名區霽景一何奇	이름난 곳 맑은 경치 어이 그리 기절한지
乘興逍遙步步遲	흥에 겨워 한가로이 걸으니 걸음마다 더디네.
石面波鳴渾似鼓	돌바닥에 부딪치는 물결 울림 북소리와 흡사하고
松陰子落自爲碁	솔 그늘에 떨어지는 솔방울은 절로 바둑을 두네.
雲歸洞僻春晴後	구름이 후미진 골짜기를 비껴가니 개인 뒤의 봄날이요
鳥到林深日暮時	새들이 깊은 숲속에 날아드니 해 저무는 때로다.
試向寒梅香信訪	시험 삼아 찬 매화를 향해 봄소식을 찾는데
調羹丕責更須誰	국 끓여 간 맞추는 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²²⁾

두런에서 경련까지는 김석견의 산장 경치를 읊었다. 미련에서 ‘調羹’은 음식을 조리할 때 쓰이는 소금과 매실로 신하가 임금의 잘 도와 선정을 베풀게 하는 것을 뜻한다. 『書經』, 「說命下」에 고종이 재상인 傅說에게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일 때면, 그대가 간을 맞출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²³⁾

22) 李宜潛, 『守拙堂逸稿』, <權丈士諤 孫戚兄時 與金子固石堅 見訪于山庄 因遊賞共賦>

라고 부탁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는 수졸당이 나라를 걱정하여 하는 말이다.

詩題에 나오는 權士諤(1556-1613)²⁴, 戚兄 孫時(1555-1603)²⁵, 子固 金石堅(1546-1614)²⁶ 또한 한 수씩 짓게 되는 데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권사악의 시를 보자.

絕峽林泉路轉奇	깊은 협곡 林泉 길 더욱 기이한데
洞天紅日正遲遲	洞天的 붉은 해는 참으로 더디구나.
蘭亭曲水堪爲酌	蘭亭의 곡수에 술잔 띄워 마시는데
鶴觀長松靜聽碁	鶴觀의 장송은 조용히 바둑 소리를 듣네.
江海豪情酬晚節	江海의 호방한 경취 만년을 수창하고
文章神會際明時	문장이神通하니 밝은 때를 만났네.
虛襟不滓疏眉淨	비운 마음 때 묻지 않아 성긴 눈썹 깨끗하니
進退深憂問是誰	진퇴의 깊은 시름 누구에게 물을까. ²⁷⁾

마지막 행에서 “진퇴의 깊은 시름 누구에게 물을까.”라고 하여 나라를 걱정하며 진퇴를 고민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지은 시에서 손시는 “川楫의 경륜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²⁸⁾라고 했으니, ‘川楫’은 강물에 배를 띄워 노

23) 『書經』, 「說命下」, “若作和羹 爾惟鹽梅”

24) 權士諤(1556-1613),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明彦이며, 호는 梅窩이다. 龜峰 權德麟의 조카이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원종공신이 되었다. 벼슬은 현령에 이르렀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25) 孫時(1555-1603), 본관은 월성이고, 자는 順伯이다. 愚齋 孫仲暉의 증손이다. 임진란에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원종 2등공신이 되었으며, 또 무과에 올라 벼슬이 판관에 이르렀다.

26) 金石堅(1546-1614), 본관은 김해이고, 자는 子固이며, 호는 汶翁이다. 夢秀·夢良·夢男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용력이 뛰어나고 무예를 잘하여 당시 사람들이 金三夢이라 불렀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삼형제와 함께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둘째 아들 몽량이 전사했다. 창암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뒤에 원종공신이 되고 벼슬은 훈원원정에 이르렀으며,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27) 李宜潛, 『守拙堂逸稿』, <權丈士諤 孫戚兄時 與金子固石堅 見訪于山庄 因遊賞共賦>; <權梅窩>

28) 李宜潛, 『守拙堂逸稿』, <權丈士諤 孫戚兄時 與金子固石堅 見訪于山庄 因遊賞共

것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정치를 잘 돕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김 석견은 “이 세상 나를 알아줄 사람은 그 누구인가”²⁹⁾라고 했다. 수졸당을 비롯하여 평소에도 늘 나라에 대한 충정어린 걱정을 하곤 하던 그들은 모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졸당은 1592년 4월 16일 왜적이 침입하자 5월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父 수암공을 모시고 경주의 義陳에 나아가 왜를 토벌하는데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593년(17세) 4월에 父 수암공의 상을 당하자 3년간 산소 옆에서 여묘살이를 하고, 1595년(19세) 탈상하자 바로 참봉 孫曄, 藍浦 崔繼宗, 참봉 權應生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596년(20세) 9월에 여러 義士들과 함께 八空山會盟에 참가하였다. 또한 1597년(21세)에는 忘憂堂 곽재우가 火旺山城을 지킬 때 나아가서 참여하였다.

이처럼 수졸당은 盡忠報國에 대한 의식이 강하였다. 이 때문에 『수졸당일고』에 남겨진 그의 시문학에는 진충보국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수졸당이 교유한 인물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팔공산회맹이나 화왕산회맹 등 임진란에 참여했을 때 인연이 되었던 인물들이다. 1596년 9월 15일 팔공산 上庵에서 字를 불러 장난삼아 지은 시를 보자.

渭老遇聖主(朴公匪虎 號北溪)	渭老가 훌륭한 임금을 만났고(朴公 匪虎, 자는 渭老, 호는 北溪)
斯文景道修(鄭公大方 號東溪)	斯文이 道修를 우러러 보도다.(鄭公 大方, 자는 道修, 호는 東溪)
君弼資良臣(鄭公邦俊 號三松)	임금을 보필(君弼)하면 어진 신하에게 상을 내리고(鄭公 邦俊, 자는 君弼, 호는 三松)
邦輔翊聖朝(徐公仁忠 號望潮堂)	나라의 재상(邦輔)은 성군이 다스리는 조성을 돕도다.(徐公 仁忠, 자는 邦輔, 호는 望潮堂)
忠心推公直(黃公廷幹 號道川)	충성스러운 마음은 공평하며 정직(公直)한 사람을 추천하고(黃公 廷幹, 자는 公直, 호는 道川)

賦> ; <孫時>, “川楫經綸定在誰”

29) 李宜潛, 『守拙堂逸稿』, <權丈士諤 孫戚兄時 與金子固石堅 見訪于山庄 因遊賞共賦> ; <金汶翁>, “知音此世更伊誰”

- 壯略得士剛(朴公毅長 號淸慎齋) 장한 지략은 士剛을 얻었도다.(朴公 毅長
자는 士剛, 호는 淸慎齋)
- 採玉思伯獻(朴公瑜) 옥들을 캐는 데는 伯獻을 생각하고(朴公
瑜, 자는 伯獻)
- 修道倚景望(趙公東道) 도를 닦는 데는 景望에게 의지하네.(趙公
東道, 자는 景望)
- 炳然傾丹悃(李公宜潛 號守拙堂)炳然은 성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기울이고
(李公 宜潛, 자는 炳然, 호는 守拙堂)
- 立之屹東嶽(崔公山立 號愚庵) 立之는 東嶽에 우뚝하네.(崔公 山立, 자는
立之, 호는 愚庵)
- 堯庭命和叔(鄭公世雅 號湖叟) 요임금 조정은 和叔에게 일을 시키고(鄭公
世雅, 자는 和叔, 호는 湖叟)
- 魯國仕文伯(孫公曄 號淸虛) 노나라 文伯에게 벼슬을 시켰네(孫公 曄,
자는 文伯, 호는 淸虛)
- 德普九二占(金公見龍 號水月齋) 德普는 九二를 점쳤고(金公 見龍, 자는 德
普, 호는 水月齋)
- 聖遇千一運(呂公大老 號鑑湖) 聖遇는 천대일우의 운수로세(呂公 大老,
자는 聖遇, 호는 鑑湖)
- 經國委景任(鄭公經世 號愚伏) 나라를 다스림은 景任에게 맡기고(鄭公 經
世, 자는 景任, 호는 愚伏)
- 行道思致遠(權公見龍) 도를 행함에는 그 은택이 멀리까지 미칠 것
(致遠)을 생각하라(權公見龍, 자는 致遠)
- 冀闕象天極(金公軫 號道淵) 冀闕은 天極을 본뜬 것이고(金公 軫, 자는
天極, 호는 道淵)
- 學海注土淵(尹公瀟) 쉬지 않고 공부하면 선비의 세계(土淵)에
들어간다(尹公 瀟, 자는 土淵)
- 慶雲呈聖瑞(柳公復起 號崎峰) 경사가 생길 조짐이 있는 구름은 聖瑞를
나타내 보이고(柳公 復起, 자는 聖瑞, 호는 崎峰)
- 混泉連活源(金公漵 號琴溪) 물이 솟는 샘은 長流水의 원천(活源)에 이어
진다.(金公 漵, 자는 活源, 호는 琴溪)
- 德凝能潤身(朴公惺 號大庵) 덕이 엉기면(德凝) 몸이 윤택해지고(朴公
惺, 자는 德凝, 호는 大庵)
- 景和已殷春(權公世春) 햇빛이 온화(景和)하면 이미 봄은 무르익네.

(權公 世春, 자는 景和)
 遠方從士友(曹公好益 號芝山) 먼 곳의 士友를 따르니(曹公 好益, 자는 士友, 호는 芝山)
 眞工涵養源(李公涵 號雲嶽) 참된 공부는 마음의 본원을 함양(養源)함일 세. (李公 涵, 자는 養源, 호는 雲嶽)
 昌朝選明彥(權公士諤 號梅窩) 昌盛한 조정은 명석한 선비(明彥)를 가려 뽑고(權公 士諤, 자는 明彥, 호는 梅窩)
 聖世多景徵(孫公起陽 號聳漢) 聖君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상서로운 징조 (景徵)가 많도다.(孫公 起陽, 자는 景徵, 호는 聳漢)
 高遠能行甫(徐公思遠 號樂齋) 고상하고 深遠한 것을 능히 행하고(行甫)(徐 公 思遠, 자는 行甫, 호는 樂齋)
 修省貴德敬(鄭公三畏) 수양과 반성에는 덕과 경(德敬)이 귀하도다. (鄭公 三畏, 자는 德敬)
 金玉非國寶(李公汝璉 號竹軒) 금과 옥은 나라의 보배(國寶)가 아니오(李公 汝璉, 자는 國寶, 호는 竹軒)
 龍鳳是文瑞(白公見龍 號惺軒) 용과 봉은 문채의 상서(文瑞)로움일세.(白公 見龍, 자는 文瑞, 호는 惺軒)
 有唱相應和(南公慶生 號蘭臯) 부르면 서로 응하여 화답하니(應和)(南公 慶生, 자는 應和, 호는 蘭臯)
 時可太平世(權公師聖 號龍溪) 때는 가히(時可) 태평 성세로세(權公 師聖, 자는 時可, 호는 龍溪)³⁰⁾

팔공산회맹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에서 그들의 字를 불러 장난삼아 지은 시이다. 이 시에 나오는 사람은 朴匪虎, 鄭大方, 鄭邦俊, 徐仁忠, 黃廷幹, 朴毅長, 朴瑜, 趙東道, 李宜潛, 崔山立, 鄭世雅, 孫曄, 金見龍, 呂大老, 鄭經世, 權見龍, 金軫, 尹瀟, 柳復起, 金漵, 朴惺, 權世春, 曹好益, 李涵, 權士諤, 孫起陽, 徐思遠, 鄭三畏, 李汝璉, 白見龍, 南慶生, 權師聖으로 모두 32명이다. 수졸당은 이때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 각 지역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 특히 눈여겨 볼 사람은 朴惺, 曹好益, 鄭經世인데, 이들은 모두 팔공

30) 李宜潛, 『守拙堂逸稿』, <八公上庵 號字戲聯>

산회맹 때 만났던 인연으로 나중에 수졸당의 스승이 되었다.

수졸당의 시문학에는 진충보국에 대한 강한 의식이 드러나는데, 팔공산회맹 후에 金子固와 李若愚³¹⁾에게 쓴 시를 보자.

征北征東一路分	북쪽 동쪽 정벌 길에 헤어진 후로
海隅消息杳難聞	바다 끝 소식 아득하여 듣기가 어려웠네.
驅馳亂世誰存者	난세에 분주타가 생존한 자 누구인고?
扼腕兵間只有君	군사 틈에 분기함은 오직 그대들뿐이었네.
報國微忱知一鈞	보국의 작은 정성 한 자루의 칼에 있음을 알아
殲酋壯略誓千軍	적의 괴수 무찌를 장한 계략 천군에 맹세했네.
爲臣忍說蒙塵事	신하되어 차마 어찌 임금의 피난을 말한 손가
痛泣天西拜五雲	서쪽 하늘 우리러 슬피 울면서 오색 瑞雲에 절을 하네. ³²⁾

김자고와 이약우는 의병장으로 모두 임진란 때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두련은 팔공산회맹 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헤어진 후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함련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일어난 의병들 중에서도 김자고와 이약우가 특히 뛰어났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報國을 위해 칼을 들고 일어서 적의 괴수를 무찌르겠다고 수많은 의병들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다. 미련에서 “신하가 되어 어찌 임금께서 피난을 가야된다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전쟁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함을 암시한다. 또한 임금이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질 비장한 각오를 하였음을 암시한다. 이 시에서 수졸당의 진충보국에 대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임진란에서 많은 공을 세운 당시 경주 府尹 朴毅長³³⁾을 애도하는

31) 李訥, 자는 若愚이고, 호는 樂義齋이다. 본관은 淸安으로 경주출신이다. 임진란 때 팔공산 전투에서 적탄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니 선무원종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32) 李宜潛, 『守拙堂逸稿』, <公山會盟後 示金子固李若愚訥>

33) 朴毅長, 본관은 무안이고, 자는 士剛이다. 할아버지는 증 공조참의 榮基이고, 아버지는 현감 世廉이며, 어머니는 영양 남씨로 時俊의 딸이다. 金彦璣의 문인이며, 經史에도 밝았다. 1577년 무과에 급제해 主簿가 되고, 1588년 진해현감을 거쳐 1592년

시를 보자.

將軍英武應時生	장군의 영특하고 용맹함은 때에 응하여 태어났으니
蚤歲胸藏萬甲兵	이른 나이로 가슴속에 많은 무장한 병사를 품었네.
領海雄藩三仗鉞	영남해안 웅장한 지역에서 세 번이나 부월을 짚었으며
羅都鉅府久專城	신라고도 큰 고을에서 오랫동안 성을 오로지 했네.
威風已破島夷膽	위풍이 이미 섬 오랑캐의 간담을 깨뜨려 놓았으니
勳業長垂竹帛名	공훈과 업적은 길이 역사에 이름 남으리라.
天意茫茫終莫詰	하늘의 뜻이 망망하여 마침내 캐묻지를 못하니
可憐星落塞邊營	변방의 군영에 별이 떨어진 것을 가련히 여기노라 ³⁴⁾

경주 부윤 박의장은 수졸당의 앞 시 <팔공산 上庵에서 字를 불러 장난삼아 지은 시>에도 나오는 인물이다. 두련은 장군은 나라가 어려울 때 때마침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수많은 병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함련에서 “부월”은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의 상징으로 의장용 도끼이다. 여기서 영남지역을 떠맡는 장군이 되었다는 뜻이다. 또 경주 부윤으로서 경주성을 지킨 것을 말했다. 경련에서 “위풍이 이미 섬 오랑캐의 간담을 깨뜨려 놓았으니 공훈과 업적은 길이 역사에 이름 남으리라”고 했다. 미련은 박의장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임란전에 참전했던 동지애를 엿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수졸당의 진충보국에 대한 의식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졸당일고』에 남겨진 시문학을 통해 수졸당은 평소에 늘 나라에 대한 충정어린 걱정을 하곤 했으며, 또한 盡忠報國에 대한 의식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관관이 되었다. 이 때 소속군사를 이끌고 병마절도사 李珪과 함께 동래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장기군수 李守一과 함께 병마절도사 朴翺을 도와 적에게 빼앗긴 경주성의 탈환 작전에서 火車와 飛擊震天雷를 사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주부윤이 되었다. 성주목사,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인동부사, 경상좌병사, 경상수사가 되었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武毅이다.

34) 李宜潛, 『守拙堂逸稿』, <輓朴府尹 毅長>

3.2 家門振興과 田園閑遊

수졸당은 1625년(49세) 여름 병으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한가롭게 노닐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년은 더 살다가 1635년에 졸하였으니 이때 병을 핑계로 사직한 것은 아마도 벼슬에 대한 뜻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졸당은 형제우애와 가족에 그리고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1623년 맏아들 鑠이 죽자 지은 글을 보자.

계해년 구월 이십일일에 병든 아버지는 삼가 시절에 맞는 음식을 갖추어서 죽은 아들 宣務郎 鑠의 영혼에게 곡하면서 奠을 올리노라. 아, 슬프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이십이 년이 되었지만 평소에 아무런 질병도 없고 나이도 또한 장성하였으니 그 누구든 네가 별안간 나를 버리고 죽으리라고 말했겠는가. 아, 슬프다. 내가 서울에서 박봉을 받는 벼슬을 하느라고 부자가 서로 헤어져 있는 지가 이제 삼년이나 되었다. 금년 봄에 네가 두세 번이나 이 아버지를 와서 뵈겠다는 사연의 글을 부쳐왔으나 나는 집안이 가난하고 힘에 겨워서 행장을 차리기가 어렵고 서울의 여지에 뿔나무와 떡을 쌀이 매우 귀하고 또한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여름 사월에 내가 金吾郎으로서 왕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을 만나 보려고 길을 구부러 지나갔는데, 나는 조정에 복명하는 것이 급해서 단지 이틀만 머물렀다. 무더운 여름 달에 말을 타고 빨리 달린 나머지 친한 벗들의 응접에 지쳐서 하룻밤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또 다시 천리의 이별을 하게 되니 부자지간의 정의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는 영천 지경에까지 뒤쫓아 와서 서로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눈물을 뿌리면서 작별하니 어찌 이것이 세상에서 영결이 될 줄 알았겠는가. 슬프다. 너의 병든 아버지는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젊은 홀어미와 뱃속에 남긴의 고아는 불쌍하게도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라. 또 네가 병이 들어도 내가 그때를 몰랐고 네가 죽어도 나는 그 날짜를 몰랐으며, 병이 들어도 구료할 약을 얻지 못했고 죽어도 염습마저 하지도 못한 채 네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부음을 듣고 천리 길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 오장이 꺾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구나. 멀리 험한 것을 무릅쓰고 빗물도 피하지 않은 채 지름길을 통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착하니 이미 유명이 멀어졌고 사람과 귀신이 저절로 달

라져서 아득하고 막연하였다. 울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불러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창자가 꺾어지는 아픔이 하늘에까지 닿으니 또한 어찌하겠는가. 아, 슬프다. 오직 너만은 자질이 온화하고 양순하며 의지와 기개가 영명하고 또 재주가 있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 학업을 부지런히 하여 집안을 불들 것을 바랐더니 하늘이 어찌 어질지 못하여 이토록 빨리 앗아간단 말이나. 이것이 내가 매우 애석히 여기고 원한의 극치가 되는 까닭이다. 아, 슬프다. 너의 뱃속에 남긴 아이는 장차 다음 달에 태어날 것인데, 다행이도 아들을 낳으면 우리 부자의 제사는 맡길 수가 있으나 불행히도 딸을 낳는다면 당연히 여러 자식의 아들 가운데 한 아이를 너의 후사로 세워서 너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나 脛은 아내를 맞은 지 겨우 일 년이라 어찌 아직 나지 않은 아이로써 반드시 기약할 수 있으랴. 이것이 더욱 통곡이 나서 스스로 그치지 못할 일이다. 우리 부부는 모두 질병이 많은 데다 나이도 또한 노쇠하여 너를 따라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하에서 서로 함께 지낼 것이 반드시 그 때가 있을 것이다. 네가 먼저 지하에 들어가고 나는 아직도 세상에 있으니 슬픈 나의 심회가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 한 잔 술로 영결을 고하니 천 줄기 만 줄기의 슬픈 눈물이라. 너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³⁵⁾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 하지 않겠는가마는 이토록 구구절절 애절한 문장을 남기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³⁶⁾ 위의 글에서, “학업을

35) 李宜潛, 『守拙堂逸稿』, <哭長子諫文>, “癸亥九月二十一日 病父 謹具時羞 哭奠于亡子宣務郎諫之靈 嗚呼哀哉 汝之生於世二十有二世矣 素無疾病 而年又盛壯 孰謂汝遽去吾而沒乎 嗚呼哀哉 吾薄宦京師 父子相離者 三載于今 今年春 汝再三寄書以來 覲爲辭 吾以家貧力薄 治行爲難 且念旅邸桂玉亦艱 力止之 夏四月 吾以金吾郎 受命南下 思見汝等 枉道過之 以其復命之急 只留兩日 炎月驅馳之餘 困於親朋之接應 未做一宵之話 又作千里之別 父子之情 當作如何 汝追及於永川境 相看脉脉 揮淚而別 那知此爲永訣也 嗟 汝病父 在世無幾 青年孀婦 遺腹孤兒 慘將誰依 且汝病吾不知時 汝沒吾不知日 病不得救藥 沒不得殮殮 汝亡十餘日而後 始得聞訃 千里號痛 五內摧裂 遠冒險阻 不避雨水 間關跋涉而至 則幽明已隔 人鬼自別 冥然漠然 哭之而莫我知 呼之而莫我應 摧痛窮天 亦且奈何 嗚呼哀哉 惟汝資質溫良 志氣英明 且有才而志於學 庶幾動業 以扶門戶 天何不仁 奪之斯亟也 此吾所以痛惜之至 而冤恨之極也 嗚呼哀哉 汝之遺腹 將產於開月 幸而生男也 吾父子之祀可託 而不幸而生女也 當以諸子之中 一兒立汝後 不絕汝祀 而吟之娶妻 僅一年 豈以未生之兒 必以爲期也 此尤可痛哭 而不自止也 吾夫婦皆多疾病 而年又衰老 幾何不從汝而死也 地下相從 必有其期 而汝先入地 我尙在世 哀我懷 曷有其極 一杯陳訣 萬行哀淚 汝其知耶 其不知耶”

부지런히 하여 집안을 붙들 것을 바랐더니”와 “너의 뱃속에 남긴 아이는 장차 다음 달에 태어날 것인데, 다행이도 아들을 낳으면 우리 부자의 제사는 맡길 수가 있으나 불행히도 딸을 낳는다면 당연히 여러 자식의 아들 가운데 한 아이를 너의 후사로 세워 너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에서 가학 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다. 연이어 1625년에는 조카 鯛가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죽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英姿淑行世稱賢	뛰어난 자태와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어질다 하는데
蚤歲如何疾病纏	젊어서 어찌하여 질병에 걸렸는고.
自擬鵬程通九萬	스스로 구만리에 통하는 먼 앞길을 비기더니
那知鯨背隔三千	어찌 고래의 등이 삼천리를 막을 줄을 알았으랴.
堂中鶴髮誰溫清	집에 계신 늙은이는 누가 모실고
鏡裏鸞容亦慘憐	거울 속에 난새 얼굴 참혹하고 가련하다.
先祀無依諸子弱	선대의 제사는 자식들이 아직 어려 의탁할 데 없으니
老夫臨穴更呼天	늙은 광중에 이르러 다시 하늘에 울부짖는다.
喪子逾年又喪汝	자식 잃고 해를 넘겨 또 너를 잃었으니
窮天冤痛語難形	끝없는 원통함을 말로하기 어려워라.
九原應見吾兒牒	저승에서는 응당 내 아들 牒을 볼 것이니
須說無涯老父情	반드시 가없는 늙은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다오. ³⁷⁾

젊은 나이에 죽은 조카 鯛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집에 계신 늙은이는 누가 모실 것이며, 선대의 제사는 누가 지낼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자식 잃고 1년 뒤에 다시 조카를 잃은 슬픔은 말로하기 어려우니, 저승에 가서 죽은 아들 업을 보거든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죽은 조카의 제문을 짓는다.

36) 조선후기 申緯(1769-1847)는 아내와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들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매우 애절하다.(신일권, 「신위의 자하산장 병거기 시의 특징—윤상도·김노경 일파의 무고와 환로에의 좌절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45, 2016, 16-17면; 신일권, 「신위의 제화시에 나타난 화론 연구」, 국제언어문학회9, 2004, 100면.

37) 李宜潛, 『守拙堂逸稿』, <哀從子鯛>

아, 혼령은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양순하며 마음씨와 인품이 깨끗하고 맑아서 일찍이 시와 禮를 배우니 功名은 여력으로 하는 일이었다. 뜻은 선대에 욕됨이 없도록 하는 데에 간절하여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재주는 높고 뜻은 먼 곳에 두어 선대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명이 짧아 일찍 세상을 떠나니 아무리 슬퍼해도 미칠 데가 전혀 없어 청상과부가 된 아내의 얼굴은 비통하고 허영계 희어버린 어머니의 머리털만 휘늘어졌구나. 선대의 제사는 의탁할 데가 없고 어린자식은 어디에 붙좃을 것인가. 사람의 이치가 여기에 다다르니 하늘의 도리를 헤아리기 어려워 친하게 지내던 모든 벗들이 그 누가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슬프다. 너의 季父는 슬픔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구나. 자식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너 또한 세상을 떠나니 하늘에까지 다다른 끝없는 원통함은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우니 저 푸른 하늘은 어찌 차마 이렇게까지 한탄 말인가. 날과 달이 쉽게 지나가서 장례 날이 이미 박두함에 길게 소리 내어 슬피 우니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컴컴해지는 것 같구나. 한 잔 술로 영결하니 만고에 슬픈 마음뿐이로다.³⁸⁾

삼촌이 조카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친히 제문을 쓴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수졸당의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다. 맏아들 업의 죽음과 연이는 조카 주의 죽음은 수졸당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다. 마침내 이 해(1625년, 49세) 여름 수졸당은 병으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애착이 남달랐던 수졸당은 가문의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 살고 있던 곳의 북쪽 산기슭에 수졸당을 세웠다.³⁹⁾ 그리고 1626년(50세) 옥산서원의 원장이 되어 서원의 사당과 여러 집들을 중수하였다.

위로 두 형님의 죽음⁴⁰⁾ 이후 설천공과 함께 가문진흥을 위해 노력하던 수

38) 李宜潛, 『守拙堂逸稿』, <哭從子嗣文>, “嗚呼惟靈 資質溫良 襟韻潔清 蚤學詩禮 餘事功名 志切無忝 不墜家聲 才高志遠 可繼先業 不幸短命 痛矣莫及 鸞容慘慘 鶴髮依依 先祀無托 弱子何歸 人理到此 天道難測 凡在親朋 孰不悲惜 嗟汝季父 摧痛尤切 喪子未幾 汝又云亡 窮天冤痛 沒世難忘 彼蒼者天 胡忍此極 日月易邁 襄期已迫 長號失聲 天日晦冥 一觴永訣 萬古哀情”

39) 이원균, 「선비마을 양동에 대하여」,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 I』,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2, 11면.

40) 둘째 養拙堂 李宜澄은 1596년에, 첫째 無忝堂 李宜潤은 다음 해 1597년에 졸했

줄당은 또 다시 1627년(51세) 겨울 설천공의 상을 당하게 된다.

아, 슬프다. 우리 형님은 大賢의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진 스승을 얻어서 의지하여 따랐으니 그 사업은 전한 데가 있고, 학문은 淵源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계사년(1593) 초여름에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함에 형님은 江右로부터 적의칼날을 무릅쓰고 달려왔으니 이때의 그 지없는 슬픈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형용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통곡하니 천지가 변색하고 귀신도 또한 흐느꼈습니다. 겨우 喪制가 끝나자 伯兄과 仲兄 두 분 형님께서 서로이여 세상을 떠나시니 집안에서 일어난 재앙의 참혹함은 세상에 다시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 두 형님께서서는 다만 찢먹이 고아만을 남겨 두셨으니 형님과 저는 정신과 넋을 잃고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여 인간 세상에 뜻이 없어지고 스스로 만드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형제가 오십이 넘도록 세상에 살아 있었습니다. 형님께서서는 여러 대에 걸쳐 덕을 쌓은 경사를 받들어서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려서 선조의 제사를 돕고 집안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자식과 조카의 죽은 자가 두셋이나 되고 형님께서 또 여기에 이르니 어찌 하늘이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단 말입니까. 아, 슬프다.. 형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아우에게 늙바탕에는 당연히 관직에서 물러나 벼슬을 던져버리고 한 가롭게 雪川亭 위에 누워서 형제끼리 서로 화합하여 머리가 허영게 쉰 노년을 즐기다가 여생을 마치자고 하였습니다...⁴¹⁾

위에서 “우리 형님은 大賢의 가문에 태어나서”, “형님께서서는 여러 대에 걸쳐 덕을 쌓은 경사를 받들어서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려서 선조의 제사

다.

41)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叔兄雪川亭公文>, “嗚呼 我兄生大賢之門 而承趨庭之訓 又從而得賢師 爲之依歸 其可謂業有傳而學有源矣 ..癸巳初夏 又遭終天之痛 兄自江右 冒賊刃來奔 此時罔極之情 何可形言 相對痛哭 天地變色 而鬼神亦爲之泣矣 纔畢喪制 伯仲兩兄 相繼云亡 門禍之慘 絕世所無 是時 兩兄只遺乳下孤兒 兄與我 失精喪魂 如醉如狂 無意人世 自分必死 猶幸兄弟在世五十餘年 兄則承屢世積德之慶 立身揚名 以爲先祀可助 門戶可扶 不幸比年以來 子姪之喪亡者二三 而兄又 至此 何天之弔吾門 至於此極也 嗚呼哀哉.. 兄嘗謂弟曰 當於老境 休官投綬閒臥於雪川亭上 墳簞相和 白首湛樂 以終餘年..”

를 돕고 집안을 붙들었습니다.”에서 가문에 대한 공지와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을 볼 수 있다.

설천공의 죽음 이후 母 인동 장씨가 낳은 형제들 중에 혼자 남은 수졸당은 1632년(56세) 봄에 先集과 여러 서적들을 인쇄하고, 1633년(57세)에는 先集의 부록을 편정하였다. 그리고 서에 류성룡의 <館學의 疎에 답하는 御札의 끝에 쓴 글>을 간행하였는데, 그 때 文康公(旅軒 張顯光)이 죽장면 입암리에 옮겨와 살았으므로 편지로 상의하여 정하였다.

한편 수졸당은 1625년(49세) 여름 병으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가문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원에서 한가롭게 노닐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10년은 더 살다가 1635년에 졸하였으니 이때 병을 핑계로 사직한 것은 아마도 벼슬에 대한 뜻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설천공이 죽자 지은 제문에서도 “형님께서는 일찍이 이 아우에게 늙어서는 관직에서 물러나 벼슬을 던져버리고 한가롭게 雪川亭 위에 누워서 형제끼리 서로 화합하여 머리가 허영게 쉰 노년을 즐기다가 여생을 마치자고 하였습니다.”⁴²⁾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뜻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이 때 지은 시를 보자.

謝病投簪笏 병으로 사양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歸來臥草廬 돌아와서 초가집에 누웠으니.
 剩得閒中趣 한가로운 가운데 얻는 재미는
 生涯是釣魚 살아가는 동안에 고기 낚는 것이라네.⁴³⁾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양좌동으로 돌아와서 머물면서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수졸당이 벼슬에 물러난 뒤에 쓴 시에는 이렇게 자신의 전원에서 또는 지인의 전원을 찾아 한가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德普 金見龍⁴⁴⁾의 水月亭을 찾아서 지은 시이다.

42) 李宜潛, 『守拙堂逸稿』, <祭叔兄雪川亭公文>, “兄嘗謂弟曰 當於老境 休官投絃閒臥於雪川亭上 墳簷相和 白首湛樂 以終餘年”
 43) 李宜潛, 『守拙堂逸稿』, <寄崔慶承> 第二首.
 44) 金見龍, 본관은 수원이고, 자는 德普이며 호는 水月齋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十載時暇休 십년 만에 틈을 내어 쉬고 있으니
 悠悠憶會遊 어렴풋이 함께 놀던 일 떠오르네.
 講道無餘日 도를 강론하다가 여일이 없어
 相逢已白頭 이제야 만나보니 어느덧 백발일세.⁴⁵⁾

기·승구에서 벼슬생활 십여 년 동안 公事로 바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노라니 예전에 같이 놀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고 벗이 그리워진 것이다. 전·결구에서는 그 이후에도 고향에서 후손들을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다가 마침내 수월정을 찾아보니 어느덧 백발이 되어 있는 벗을 보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 것이다. 다음 시는 崔慶承의 六宜堂을 찾아가서 지은 시이다.

樽酒相逢處 술동이 기울이며 상봉한 곳에
 白頭靑眼開 백발에 靑眼으로 반갑게 맞이하네.
 寒波明鏡淨 차가운 물결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列岫畫屏廻 늘어선 산들은 그림병풍 돌렸는 듯.
 此地眞奇勝 이곳은 참으로 뛰어난 경치이니
 遊人幾往來 노니는 사람들 얼마나 오갔을까.
 諸賢吟詠在 諸賢의 읊조린 시 남아 있어서
 珠玉滿堂堆 주옥같은 시들 마루에 가득하네.⁴⁶⁾

六宜堂은 崔繼宗(1570-1647)⁴⁷⁾이 1619년에 세운 별장으로 그의 호를 따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豆毛浦萬戶를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광제우를 따라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다.

45) 李宜潛, 『守拙堂逸稿』, <水月亭 次金德普見龍韻>

46) 李宜潛, 『守拙堂逸稿』, <題崔慶承繼宗 六宜堂>

47) 崔繼宗(1570-1647),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慶承이며, 號는 六宜堂이다. 임진왜란 때 숙부인 최봉천, 최진립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그 후 무과에 급제하여 서생포 첨사를 거쳐 남포현감에 승진되었으나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거부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일생 벼슬을 멀리하고 육의당에서 은거했다.

라 ‘육의당’이라 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남포현감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은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일생 벼슬을 멀리하고 육의당에서 은거했다. 두련에서는 최경승을 오랜 만에 만났던 것 같다. 흰머리에 반갑게 맞아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육의당 주위의 승경을 읊었다. 육의당 옆으로 흐르는 물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산들은 병풍처럼 육의당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다. 경련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경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여러 선비들이 읊조린 주옥같은 시들이 육의당에 남아있다고 했다. 다음은 최경승에게 부친 시이다.

爲訪幽棲山水村 경치 좋은 마을 그윽한 집을 찾아가니
 巖花堤柳護柴門 바위에 핀 꽃과 방축에 버드나무 사립문을 둘렀네.
 歸來一念頻來往 돌아온단 일념으로 빈번히 내왕하니
 仙境依倚入夢魂 선경이 어렴풋이 꿈속에 나타나네.⁴⁸⁾

기·승구에서 바위에는 꽃이 피어있고 방축에는 버드나무가 사립문을 빙 둘러있는 경치 좋고 그윽한 곳에 자리한 최경승의 육의당을 찾아갔다고 했다. 전·결구에서 ‘仙境’이라 하고 꿈속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육의당은 상당히 아름다웠던 모양이다. 또한 육의당을 자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졸당일고』에는 12수의 시중에서 3수가 육의당에 대한 시이다. 다음 시를 보자.

卜築高亭名勝村 名勝村에 터를 잡아 높은 정자 짓고
 幽居元是厭器喧 숨어 삶은 본래 시끄러움 싫어함일세.
 古今風月藏仙洞 古今에 좋은 경치는 仙洞에 감춰있고
 朝暮煙霞入翠軒 아침저녁 안개는 푸른 정자에 들어오네.
 綠水涵虛橫黛色 綠水에 빠진 빈 하늘엔 검푸른 빛 가로놓였고
 丹崖聳碧印苔痕 丹崖에 솟은 푸른 벽엔 이끼 흔적 남아있네.

48) 李宜潛, 『守拙堂逸稿』, <寄崔慶承> 第一首.

休休半世無餘事 관직에서 물러나 원지 반평생에 판일 없으니
閒臥晴窓掩竹門 한가로이 밝은 창가에 누워 대사립을 단았네.⁴⁹⁾

두런에서 최계종이 명승촌에 터를 잡고 옥의당을 지어 숨어 삶은 본래 시끄러움 싫어함이라고 하고 있다. 함경련은 옥의당 주변의 승경을 읊었다. 미련에서 ‘掩竹門’은 세상의 시끄러움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보내고 있는 것이다. 수졸당이 옥의당을 자주 찾은 것은 옥의당의 경치가 아름답기도 했겠지만 옥의당과 수졸당의 이러한 뜻이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수졸당일고』에 남겨진 시문학을 통해 수졸당은 형제우애와 가족애 그리고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이 때문에 만년에는 벼슬에 대한 뜻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자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고는 守拙堂 李宜潛의 생애와 詩文學을 통해 삶의 行蹟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수졸당의 학문 연원은 어렸을 때 父 수암공으로부터 학문의 기초를 익히고, 大庵 朴惺, 芝山 曹好益, 愚伏 鄭經世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졸당은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임진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칼을 들고 팔공산회맹과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다. 수졸당이 교유한 인물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이때 만났던 사람들로 각 지역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守拙堂逸稿』에 남겨진 시문학을 통해 수졸당은 평소에 늘 나라에 대한

49) 李宜潛, 『守拙堂逸稿』, <次六宜堂韻>

충정어린 걱정을 하곤 했으며, 또한 盡忠報國에 대한 의식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제우애와 가족애 그리고 가학계승과 가문진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며, 이 때문에 만년에는 벼슬에 대한 뜻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면서 전원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졸당은 위로 두 형님이 일찍 졸하자 셋째인 雪川亭과 함께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양동이 회재를 낳았다면 양동마을의 형성은 설천공과 수졸당에 의해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

[ABSTRACT]

Soojoldang Lee Eui-jam's Life Trajectory seen through His Life and Poetry

Shin, Il Kw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oojoldang Lee Eui-jam's life trajectory (who lived from 1576 to 1635) through his life and poetry.

When Soojoldang was a child, he learned the basics of learning from his father, Suamgong, and studied under Daeam Park Sung, Jisan Jo Ho-ick and Woobok Chung Gyung-se.

Soojoldang was devoted to his family. When the country fell into crisis because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e participated in Palgongsan Alliance and Hwawangsan Alliance. Most of the people who he kept company with were participants in those alliances, which provided him with an opportunity to have different types of exchanges with people from various regions.

Soojoldang's poems included in 『Sujoldang Ilgo』 suggest the following: He was always worried about his country out of a sense of patriotism and had a strong mind to repay the country with utmost loyalty; he was on good terms with his siblings and had a deep love of his family; he had an uncommonly strong mind to follow the academic tradition and enhance the status of his family; he intended to live an easy life in the countryside in old age while trying to enhance his family's status instead of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Soojoldang made every efforts to follow his family's academic tradition with his third elder brother, Sulchunjung, after his two eldest brothers' death at an early age. Yangdong village produced Hoejae, and Sulchunjung and Soojoldang laid the foundation for forming that village.

Key Words: Soojoldang Lee Eui-jam, Hoejae Lee Uhn-jeok, Yangdong village, Oksanseowon Confucian Academ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algongsan Alliance and Hwawangsan Alliance

참고문헌

- 李宜潛, 『守拙堂逸稿』
朴 惺, 『大菴先生集』, 한국문집총간 314.
曹好益, 『芝山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564.
鄭克後, 『雙峯先生文』, 한국문집총간 565.
李源鈞, 『譯註守拙堂逸稿』, 대보출판사, 1995.
『孟子』, 「盡心下」, 학민문화사, 1998.
『書經』, 「說命下」, 학민문화사, 1990.
김상일, 「설천 이의환의 생애와 시세계」,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Ⅱ』,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3, 15면 참조.
신상구, 「무침당 이의운의 선비로서의 삶과 학문」,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Ⅰ』,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2, 53-72면 참조.
신일권, 「신위의 자하산장 병거기 시의 특징- 윤상도·김노경 일파의 무고와 환로에의 좌절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45, 2016, 16-17면.
신일권, 「신위의 제화시에 나타난 화론 연구」, 국제언어문학회9, 2004, 100면.
이원균, 「선비마을 양동에 대하여」, 『양동마을 선비들의 학문과 삶Ⅰ』, 위덕대학교 양동문화연구소, 2012, 11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6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